

社 說

포천신문 가족 송년의 밤

포천신문이 재창간 4주년을 기념하여 '2004 포천신문 가족 송년의 밤'을 포천웨딩홀에서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날 송년의 밤에는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용정웨딩홀과 자리가 부족해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렇게 포천신문 가족 송년의 밤이 성황을 이루게 된 것은 지난 4년 동안 포천신문이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해 실천해 왔기 때문에 풀이된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37명,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30명,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 40명,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73명,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143명 등 323명과 포천신문 임직원 40여명과 내빈 20여명 등 모두 4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각 위원회별 구성원의 모임을 맡고 포천신문이 지역정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체를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부패한 곳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눈빛이 가득했다.

전국최고의 지역신문을 만들어내겠다는 일념으로 추진해온 지난 4년 동안의 포천신문 발전사추는 '흔적을 받지 않는 언론사'로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최호열 발행인이 인사말을 통해 흔적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를 떠나야 했던 기자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듯이 가장 깨끗한 신문으로 성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지역의 원로 및 단체장으로 구성된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문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원함과 동시에 위헌 상소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관내에서 성실하게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제1회 포천민속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것처럼 이번 송년의 밤 행사도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게 됐다.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단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하며 탁월한 지도력으로 청소년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활동상대가 저조했으나 이번 송년의 밤을 계기로 다양한 보도활동을 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은 포천신문이 전국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포천신문이 지역정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체를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부패한 곳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눈빛이 가득했다.

전국최고의 지역신문을 만들어내겠다는 일념으로 추진해온 지난 4년 동안의 포천신문 발전사추는 '흔적을 받지 않는 언론사'로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최호열 발행인이 인사말을 통해 흔적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를 떠나야 했던 기자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듯이 가장 깨끗한 신문으로 성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지역의 원로 및 단체장으로 구성된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신문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신설해야 한다 ②

-경기도분도론?-

경기남북 지역간 격차 커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할 때

요즘 경기도 남북분도 문제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 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있고 경기북부주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역격차는 국가 및 사회발전에 역기능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갈등해소를 따라 국가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역격차를 불러일으키는 지역 불균형 발전전략은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간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압축성장과정에서 이러한 특정지역과 그 외의 지역과의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역제와 인구분산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할 다핵의 광역개발을 추진하면서 1981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간 격차는 1960년대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었다. 중앙정부가 성장거점 이론에 따라 1960년대는 경인개발 축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에는 동남 개발권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 생산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철도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동시에 도시가 발달하면서 지역격차를 유발한 것이다.

이러한 압축성장과정에서 이러한 특정지역과 그 외의 지역과의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역제와 인구분산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할 다핵의 광역개발을 추진하면서 1981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기에는 했으나 직접적인 개발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역제에 포함되어 경기남부의 격차가 누적되어왔다.

이러한 행정부 주도의 국가경제 개발정책으로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지역간 격차를 북부주민들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남북지역의 지역격차는 각종 통계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규모, 지역총생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 대부분 지역의 지역격차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턱 없이 뒤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전국 비교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다.

이러한 경기 남북부의 지역격차는 국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경기남부의 경우 서울과 함께 짧은 기간 내에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급성장을 이룩한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왔다.

더욱이 경기북부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



이 상 만 경기도의회 의원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수원보호 구역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중복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철저히 낙후된 지역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그 지리적 여건이 서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기남부지역 수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규제가 계속되고, 중앙정부에 의한 정책적 고려 없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대규모 산업이 입지할 곳은 수도권내 경기북부지역만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와 경기북부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설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60만 경기북부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경기도 분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이다.

인터뷰 김 영 오 포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지방세와 세원수입의 세원발굴과 체납액징수 노력 필요

53억4천480만원 삭감, 공무원 인원추계 잘못 22억여원 삭감

포천시의회(의장 최대중)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오)를 운영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6억6천800만원의 감액된 2천567억3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499억9천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4억4천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2억 3천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7억7천7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2건 53억4천480만원을 삭감했으며 일반회계 58건 51억2천280만원, 특별회계 4건 2억3천200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오 위원장을 만나 2005년 예산(안)심의에 대해 들어봤다. 모두 53억5천480만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력을 과시한 김영오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존중했으며 예산낭비성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삭감했고 포천시 14개 읍면동이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외연수비를 과다계상해 7건 1억3천910만원을 삭감처리했으며 경상경비로 잘못된 공무원 인원 추계에 따른 공무원 기본급 17억4천472만5천원을 삭감하고 명절휴가비 1억5천455만5천원, 기계지원비 2억5천758만9천원, 연가보상비 7천298만4천원 등 4건 22억2천985만2천원을 삭감처리했다"고 말했다.

김영오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의를 주요 검토사항을 "각종 체육대회, 축제, 행사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했으며 2005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어 해외연수 비용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포천시가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과 "세출분야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와 사회적 접자본시설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를 겸사겸사하게 개최하거나 축소하는 등 경성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알뜰한 재정을 운영해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회계(기획감사담당관실)▶민선3기 3년성과 홍보물제작 2천만원 전액삭감▶재경시민회 보고서 제작 500만원 전액삭감▶소송수행료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신생아출산 축하장려금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시정경영진단용역비 1억5천만원 전액삭감 (문화공보담당관실)▶포천시출발지도제작 1천만원 전액삭감▶포천시홍보대사 홍보사례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탕저지저지선 방벽 홍보물 설치 2천만원 전액삭감▶민속축제 행사지원비 3천만원 전액삭감▶포천명주추제 지원 5천만원 전액삭감▶경기소리보존회정기공연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영평팔경 민요창작 2천만원 전액삭감▶문화재 긴급보수비 3천만원중 2천만원으로 조정(자치행정과)▶2006년도 업무수첩 제작 1천82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삭감▶시승

- 경기남행사 5천만원 전액삭감▶퇴직및공로연수자 해외연수(배우자동반) 4천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삭감▶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연수 4천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삭감▶모범공무원 해외연수 3천750만원 전액삭감▶민원안내도우미 2천160만원 전액삭감▶통리장 해외연수 2천만원 전액삭감▶포천시정보화 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 전액삭감(주민자치과)▶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1천만원 전액삭감▶새마을청소노동사단 발대식 1천만원 전액삭감▶제2회 전국마라톤대회 3천만원 전액삭감▶제2회 전국인라인스케이팅대회 3천만원 전액삭감▶제2회 포천시장배민스대회 1천500만원 전액삭감▶제2회 대한노인회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삭감▶대회산보교전지훈련장 기본계획 설계용역 1천500만원 전액삭감▶대회산보교전지훈련장 설치 5억원 전액삭감▶대회산보교전지훈련장 설치 315만원 전액삭감▶항방우의 구입 500만원 전액삭감(회계과)▶기본급 180억8천719만5천원에서 163억4천2백47만원으로 삭감▶명절휴가비 17억3천867만3천원에서 15억8천411만9천원으로 삭감▶가계지원비 28억9천778만1천원에서 26억4천199만9천원으로 삭감▶연가보상비 8억2천104만1천원에서 7억4천805만7천원으로 삭감▶소회의실 내부인테리어공사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삭감(사회복지과)▶반월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2천300만원 전액삭감(환경보호과)▶입주지원지역주민 해외폐기물처리시설견학 6천만원 전액삭감(지역산입과)▶7기입주지침보물 제작 2천만원 전액 삭감▶무인단속카메라설치(과속단속) 8천100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삭감▶무인단속카메라설치(신호단속)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삭감(농축산과)▶수매제도폐지대비포천쌀공급차액지원 2억2



김 영 오 의원

천500만원 전액삭감▶축산지도자 워크샵 개최지원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제2회 축산페스티벌 행사지원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삭감(산림녹지과)▶47번국도 가로수 식재 1억원 전액삭감(건설과)▶일동면 유동2리 마을회관 2억원 전액삭감(도시과)▶운천홍보용 이정표 설치 9천만원 전액 삭감(건축과)▶농어촌마을정비사업 9억9천300만원에서 8억550만원으로 삭감▶부작격광교로 교체 보조사업 5천만원 전액 삭감(영종면)▶322번 지방도 가로수 식재 2천100만원 전액삭감▶태백식조물 소공원 조성 2천만원 전액삭감▶영평천 제방복지 조성사업 1천500만원 전액삭감(화현면)▶인조잔디 미니축구장 유래단 탄성 포장 1억원 전액삭감▶아리음역당 조성공사 1억원 전액삭감▶특별회계(문화공보담당관실)▶관광상품제작 및 구입(머그컵,포장제 등)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삭감▶백운계곡 주차장 정비공사 5천200만원 전액삭감(수도사업소)▶수질시험기 및 보조기기 구입 1억5천만원 전액삭감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정치활동 동향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담양 위원회 부위원 법안을 심의, 이후에는 제34차 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관련 우리당 당론 채택, 임시국회 본회의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박은욱 포천시장은 지난 15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음식업소 위생교육에 참석해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한발 앞선 친절서비스와 청결"로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포천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중 포천시의회장은 지난 17일 포천 용정회관에서 포천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학생명예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 조사위원회 등 400여명의 개최된 2004 포천신문 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시상하고 포천신문의 발전을 기원했다.



오병기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전략에 관해 논의하고 포천 특별언약 연구원에서 개최된 포천의제21 창립4주년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포천종합고등학교 영농학생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2회 축산진흥대회(축총제) 행사에 참석해 축산과 졸업 동문 및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줄 것을 당부하고 함께 축총제를 지냈다.



이천옥 포천시의회장은 지난 15일 포천시여성회관에서 CEO 초청 경제포럼에 참석, 산업자원부 무역상임위원인 허병도 박사의 '글로벌 경제와 중소기업인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경청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김영오 포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가산면 장학회 연말결산회의에 참석해 장학금 집행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지난 15일 송우웨딩홀에서 개최된 송우지구 생활안전협의회위원회 송년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병옥 포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신음동 모음식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포천시협회가 주최한 대통령 표창 개인 및 단체 수상 자축연, 평화통일 활동평가 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강태선 포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영종면 개발자문위원회의 목요일에 참석하고, 지난 18일 영종면체육회 연말총회에 참석해 1년간 운영되고 집행된 면체육회의 결산 및 내년도 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

포천시 의회속기업무 담당 직원 채용

원서접수는 12월 27일과 28일 이틀 간

포천시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통해 의회사무국에서 속기업무를 담당할 기능9급 직원 1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12월 27일과 28일 이틀 간이며, 한글(컴퓨터)속기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

하다. 채용연령은 18세 이상 40세까지(63.1.1 ~ 86.12.31)며, 학력이나 경력, 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2004년 7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직자가 포천시로 돼

야 한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경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는 한국사와 일반상식 필기시험이 추가된다. 구비서류와 제출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자치행정과(☎031-530-8112)로 문의하거나 포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cs21.net)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등 록 번 호 경 기 다 50007 2000. 8. 18 등 록 포 천 신 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1년 구독료 48,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 호 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인 구 봉 주 기사제보 (031)542-9115 편집국장 김 영 복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 영 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 쇄 인 김 규 석 F A X (031)541-9117